

When What I Made Became Me

내가 만든 것이 내가 될 때

242

용세라
Yong Sera

1. 이야기의 시작
2. 그간의 이야기
3. 지금 나의 이야기
4. 프라울(Praoul)의 이야기
5. 앞으로의 이야기

디자이너로서 내가 만들어 내는 이미지의 개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클라이언트로부터 한정적인 쓰임을 갖는 디자이너가 되어간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서 나 자신의 클라이언트화, 즉 내 작업을 스스로 발표하는 일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코로나 19 시기를 거치며 생겨난 작업 시간으로 내가 주도하여 시작한 프로젝트를 전시를 통해 선보였다. 2020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선보인 ‘마이크로스코피(Microscopy)’는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며 그때그때를 살아가는 유기체의 순간순간을 포착한 그래픽 시리즈로 2018년에 시작한 프로젝트를 발전시킨 것이었다. 또 하나는 2013년 베를린에서 결성한 ‘프라울(Praoul)’의 첫 개인전이다. 프라울은 프라하와 서울의 합성어로 파블라 자브란스카(Pavla Zabranska)와 용세라로 구성된 팀이다. 2021년에 열린 ‘프라울 더 캐피탈(Praoul The Capital)’은 서울 혹은 프라하가 아닌, 각 도시의 영향을 받고 자란 두 사람의 아이덴티티가 합쳐진 새로운 수도이자 세계관을 선보인 전시로, 그 자체로 우리의 작업 방법론과 매체 사용법에 관한 소개였다.

The images I make as a designer are very reflective of my personality. However, as I had to play a limited role as a designer for clients in the past, I came to turn my attention on presenting my own projects. With some time to work for myself during the COVID-19 situation, I presented my own projects through exhibitions. In 2020, while participating in the Asia Culture Center’s residency program I presented *Microscopy*, a graphic series that depicted the moments of constantly moving organisms. *Microscopy* was developed from a project I had started in 2018. Another case of showing my own works was a solo exhibition from a group called Paroul (Prague + Seoul), which was formed in Berlin in 2013. Paroul is the compound word of Prague and Seoul, and the team consists of Pavla Zabranska and Yong Sera. The exhibition held in 2021, *Praoul The Capital*, presented not Seoul and Prague, but a new capital—the combination of our identities, from two people who were respectively influenced by each city while growing up—and our own worldview, our working methodology, and ways to use media.

1. 이야기의 시작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일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자 모든 디자이너가 하고 있는 일이다. 디자이너로서 내가 만들어 내는 이미지의 개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클라이언트로부터 한정적인 쓰임을 갖는 디자이너가 되어간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서 나 자신의 클라이언트화, 즉 내 작업을 스스로 발표하는 일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그렇게 하나 둘 형태를 만들어내던 것이 '마이크로스코피(Microscopy)'라는 프로젝트로 이어졌다. 그리고 코로나 19 시기를 거치며 의도치 않게 생겨난 작업 시간으로 진행한 자체 프로젝트를 몇 전시를 통해 선보였다.

2. 그간의 이야기

2011년, 한국에서 만지작거리기만 했던 태블릿을 베를린에서 일하게 되면서 비로소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그 후로 이것저것을 마구 그려대기 시작하며 나만의 디자인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기를 꽤 오랫동안 보냈다. 실컷 개성 있는 디자인 개발에 몰두하며 몇 년이 흘렀는데 개성 있는 디자인은 곧 나만 할 수 있는 디자인 즉, 나여야만 하는 디자인일 텐데, 결국 이런 수요는 많지 않을 것이고, 있더라도 길게 지속되지 않을 것이 자명했기에 한국에 돌아와서 그 고민은 더 깊어졌다.

244

3. 지금 나의 이야기

2020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레지던시 프로그램인 ACC_R의 주제는 '바이오필리아(생명존중)'이었다. 이 주제는 2018년부터 이어오던 '마이크로스코피'라는 제목의 프로젝트와 큰 의미로 서로 맞닿아 있었기에 프로젝트를 전제하기에 시기적으로도 적합했고, 코로나 19 상황 때문에 몇 프로젝트들이 취소되면서 개인적으로도 시의적절했다.

'마이크로스코피'라는 주제 아래 나온 여러 그래픽들을 하나 둘씩 선보이며 그것들로 하나의 군을 형성했다. 이 작업은 자연에서 비롯한 형태와 색을 활용하여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며 그때그때를 살아가는 유기체의 순간순간을 포착한 그래픽 시리즈다. 생명을 지닌 것들은 모두 나름의 방식으로 삶을 유지한다. 아주 작은 미생물의 작은 움직임들이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순간들이 있었다. 그것은 아주 가까운 사람의 죽음으로부터 느끼는 굉장히 개인적인 영감의 과정 같은 것이었다.

레지던시 기간 중 나온 결과물을 선보였던 '바이오필리아: 흙 한줌의 우주' 전시는 2020년 11월 24일부터 2021년 3월 1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렸고, '마이크로스코피' 프로젝트를 통해 나온 그래픽들을 입힌 물건들을 전시하고, 새로운 그래픽의 디테일을 선보였다.



[그림 1] Microscopy: ACC_R Residency Exhibition 〈BIOPHILIA: A Handful of earth〉, Gwangju, Korea, 2020



[그림 2] We Want Soul: Visual grammar exhibition for Modern Theory with Hort, Brussels, Belgium, 2012



[그림 3] Wallpaper* Hand made issue cover with Hort, 2012

246



[그림 4] Arab contemporary for Mousonturm with Hort, Frankfurt, Germany, 2012



[그림 5] East Village NY: Vulnerable and Extreme / Visual Identity Design for Seoul Museum of Art, Korea, 2018



[그림 6] Microscopy: ACC_R Residency Exhibition (BIOPHILIA: A Handful of earth), Gwangju, Korea, 2020



[그림 7] Microscopy: ACC_R Residency Exhibition (BIOPHILIA: A Handful of earth), Gwangju, Korea, 2020



[그림 8] ACT Festival 2019: FoodHack, Visual Identity Design for Asia Culture Center, Gwangju, Korea, 2019



[그림 9] Microscopy: ACC_R Residency Exhibition <BIOPHILIA: A Handful of earth>, Gwangju, Korea, 2020



[그림 10] Illustration for Heavy magazine with Pavla Zabranska, Korea, 2020



[그림 11] Pattern Design for Nike Europe with Pavla Zabranska, Berlin, Germany, 2018



[그림 12] Set Fire, Set and Pattern Design for Nike at Bread and Butter Fashion Fair with Pavla Zabranska, Berlin, Germany, 2018



[그림 13] 〈Praoul The Capital〉, with Pavla Zabranska, Seoul, Korea, 2021





[그림 14] <Praoul The Capital>, with Pavla Zabranska, Seoul, Korea, 2021

254



[그림 15] <Praoul The Capital>, with Pavla Zabranska, wrm space, Seoul, Korea, 2021

4. 프라우(Praoul)의 이야기

프라우(Praoul)은 프라하와 서울의 합성어로 프라하 출신 파블라 자브란스카(Pavla Zabranska)와 서울 출신인 나, 용세라가 베를린의 스튜디오 호르트(Hort)에서 만나 2013년 결성했다. 그 후로 프라우은 현재까지 각자 디자이너로 일하며 따로 혹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프라우은 현실의 사물을 비현실적인 표현 방법으로 그려내는 데 흥미를 갖고 있다. 그에 걸맞은 사운드를 결합하여 초현실적인 분위기를 구체화했다.

전시 ‘프라우 더 캐피탈(Praoul The Capital)’은 2021년 5월 5일부터 23일까지 서울 더블유알엠 스페이스(wrm space, whatreallymatters)에서 열렸다. 코로나 19가 창궐하기 전부터 우리는 각자 나름의 이유로 떨어져 있었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작업해 왔다. 서울의 용세라가 작업해서 넘기고 잠을 청하면 아침을 맞은 프라하의 파블라가 이를 받아 작업을 이어가는 식의 꽤나 효율적인 타임존에서 생활하며 수월하게 작업할 수 있었다. 전날 서로가 해놓은 작업을 확인하는 아침 일과는 얼굴도 모르는 펜팔 친구가 보내는 편지를 열어볼 때만큼이나 설레는 일이었다.

‘프라우 더 캐피탈’은 서울과 프라하가 아닌, 그 두 도시의 영향을 받고 자란 두 명의 아이덴티티가 합쳐진 새로운 수도이자 세계관 그 자체인 프라우을 선보이는 전시이자 언택트 시대에 더욱 쓸모 있어진 우리의 작업 방법론과 매체의 사용법을 선보였다.

5. 앞으로의 이야기

내가 만들어내는 이미지들이 온전히 나만의 것으로 비취지게 하는 것이 지난 내 10년의 과제였다. 그리고 다음 10년의 과제는 내 개성을 어떻게 설득시킬지를 이야기해보려 한다. 개성 있는 디자인이 나만 좋아하는 디자인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 말이다. 41